

문화특집



정읍 상동지구대, 찾아가는

4대악 교통사고 예방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지구대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은 물론 오토바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약자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방문해 범죄예방 홍보전단지 등을 전달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불법쓰레기 등 4대 사회악과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예방은 물론 농기계, 오토바이 등 운전자 안전운행 등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조선동 당현마을에 거주하는 김모씨(88세)는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사고날 뻔한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앞으로 안전모도 꼭 착용하고 조심해 운전해야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지역 건강조사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시민의 건강행태 및 삶의 질과 관련, 2016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표본가구 450가구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900명이다.

조사항목은 19개 영역 171개 항목으로, 흡연과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보건,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심정지, 교육 및 경제활동 등 건강행태 관련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사전에 조사대상 가정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사는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 상자와 1:1 면접으로 실시한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지역 건강통계를 확보, 이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획 수립 및 수행, 평가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건강통계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서 개인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 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완료(2017. 3)후 일괄 파기 된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응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홈네저 전문가 재능나눔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순애)가 22일 김제대문화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세탁물 정리방법 등 홈네저 전문가 재능 나눔활동을 전개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나눔활동은 올 해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전북도 성평등기금을 지원 받아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추진하였던 홈네저 양성 교육과정이 완료됨에 따라 배운 내용을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연결한 것으로, "배워서 배움"이라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봉사활동의 주요 내용은 교육 수강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던 수건, 양말 등 의류정리 교육으로, 교육생과 학습생이 1대 1 맞춤형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효과를 높였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2세대를 선정하여 생활환경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전수교육을 마친 후에는 금산면과 용지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2세대를 가정방문하여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으며, 도서정리용 책꽂이와 신발장을 구입하여 전달하기도 하는 등 다문화가정과 다정하고 친숙한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매창휘호대회' 부안 개최

조선시대 3대 여류시인 이매창의 가치 알리고자... 오정권씨 대상

"이화후 흠날릴 제 물며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매" 조선시대 황친희와 쌍벽을 이뤘던 이매창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제8회 전국매창휘호대회 지난 20일 부안 스포츠클럽 실내체육관에서(사)한국예총부안지회 주최(지회장 김종문), 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지부장 김영동) 주관으로 전국의 서예가는 물론 문인화가 8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 열렸다.

입당·허난설헌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여류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안출신 이매 창(18세기)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전국 매창휘호대회에 대상은 오정권(군산시)씨가 우수상 오광석(화성시), 김정희(서울시), 소경숙(부여군), 특선 안미정(부안군) 외 9명, 장려상 서정숙(충남 서산) 외 19명, 입선 윤재기(경남 창원) 외 19명이 입상했다.

김종문 부안예총회장은 "매창의 예술과 문학성을 재조명하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그의 예술적 가치가 전국에 더욱 알려져 화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서예인이 참여하고 훌륭한 휘호 작품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인 오정권씨에게는 작가 누적접수가 20점이 되면 초대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입상된 작품은 10월 1일 시상식과 함께 5일까지 부안예총회관에 전시된다. 또 도록이 제작되어 전국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북면 신촌지구 564필지 86만3천598㎡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가 결정된 북면 신촌지구는 지적불합치로 인한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정읍 북면 신촌지구 경계 결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탄력'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정주지방병원 정읍지원 오세영 관사)를 개최하고 북면 신촌지구 564필지 86만3천598㎡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가 결정된 북면 신촌지구는 지적불합치로 인한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

이 확정된 경계의 결정이 완료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

지탈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번 경계결정이 완료된 1개 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를 국비 3억3천여 만원을 확보해 추진해왔다.

올해는 1억8천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연지동(연지지구)과 북면 화해리(원화해지구), 북면 승부리, 구룡동(원승부·신용호지구) 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 실시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김제시

이귀례·이이순씨 우수상 수상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2016. 9)'을 기념해 열린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김제시 문해교육 수강생인 이귀례씨(74세, 길보문 은빛소화교)와 이이순씨(71세, 여성회관 한글반)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호박냉국 뺀어갸"이라는 제목의 시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우수상)을 수상한 이귀례씨의 작품에는 한글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을 가슴에 머금은 공명으로, 담배락 잘 잘 자라는 호박처럼 한글실력이 쑥쑥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시로 수상하였고 손주와 나란히 앉아서 한글공부하는 모습을 재미있는 문구로 위트있게 표현한 "우리는 1학년"이라는 시를 쓴 이이순씨는 글자 꽃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귀례씨는 "늙은이가 한글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인데 이렇게 상도 타고 정말 기쁘다"고 전하며 "오늘 배우고 뒤돌아 서면 잊어버리는 늙은 할매 학생들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해, 인생에 글자꽃이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시화전은 교

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행사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수강하는 전국의 5천여 작품 중 전라북도 광역심사를 거쳐 103개 작품이 본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겨뤘다.

수상자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선사와 함께 진행되며,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자 특별전시는 1~3일, 3일간 세종문화회관 에인마당(서울시 종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시는 지역내 비문해 노인과 저학년 성인의 학습기회권 보장을 위해 기초한글과 기능문해교육을 함께 교육하고 있으며 김제시 여성회관, 길보문 은빛소화교 부부반 한글사랑방 등 3개소 6개반으로 운영중이다. 양문연 인재양성과장은 성인문해 교육은 화령기에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민생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한글교육이 세상과 소통하는 또다른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문해학습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번 기탁으로 지속되는 폭염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긴급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제 교월동 땀돌순두부 대표 후원금 기탁

소외계층 긴급지원금

김제시 교월동 소재 땀돌순두부대표 조태양(는)는 지난 19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긴급 지원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월동 주민센터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평소에도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태양 대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 오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지하수 모터 고장으로 모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지속되는 폭염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긴급지원금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

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경준) 위원들과 복지기동대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모터 교체 작업에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김해남 사무장은 "어려운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후원자 등 지역지원을 연계하여 동 복지협의체 및 복지기동대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063-540-4966)는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나누어 줄 지역사회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희망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9월 1일부터 ~ 9월 9일까지(7일간)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II) 신규 가입 대상자 모집을 위해 사전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II)은 근로빈곤층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이 함께 지원돼 3년간 유지 시 720만원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가

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라는 생각으로 근로를 하는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소득 하한 이상만큼 유지하며 교육 및 사재관리 상담(연간 총 4회)을 이수한다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돼 3년 이후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인 가구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번 캠프는 정읍교육청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책모임 지역 내 4개 고등학교, 정읍시(7개의도서관)가 연합으로 마련됐다.

정읍 고교 독서동아리 연합 독서캠프 성료

독서 문화의 새 장 열어

정읍 기적의도서관이 2016 한 권의 책 독서운동'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정읍지역 고등학교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연합독서캠프를 가졌다.

이번 캠프는 정읍교육청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책모임(일명 책샘프로젝트: 정읍교육지원청 사업), 지역 내 4개 고등학교, 정읍시(기적의도서관)가 연합으로 마련됐다.

책샘 프로젝트 활성화를 계기로 정읍지역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참여 학생들의 우정진진과 독서모임의 공유뿐 아니라 지역 교육기관들이 힘을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첫 독서캠프임에도 독서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는 면에서 매우 뜻 깊은 프로그램이

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높은 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책샘이란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목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책 읽는 멘토를 선정해 중, 고등학생의 독서활동을 지도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과 학생들 간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 책모임 확산을 통한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있다. 이번 행사의 시작은 '인문학 첫 발 내딛기'로, 정읍교육지원청 이현근 장학사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인문학 강의가 있었다. 엄마 인문학 6개 주제(역사, 예술, 철학, 정치, 경제, 문학)별로 모둠을 구성하여 주제별 인문학 소개 및 발표토론, 인문학으로 통하는 영화감상, 토론주제에 대한 과제작성 및 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